www.kmi.re.kr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3월 16일 · 제348호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CKYHE 얼라이언스, 아시아–유럽 및 아시아–지중해 노선개편
2. 2020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증가율 약 10% 이를 전망
3. 영국 Forth Ports사, Tilbury 항만 확장 부지 인수
4. DHL, 저탄소 해운서비스 개시

| 물류시장동향 |

1. EU, K+N/Panalpina/CEVA/Schenker에 가격담합 협의로 벌금 부과
2. 하파그로이드사, 중량 · 장척 등 특수취급 화물 집하 강화 계획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CKYHE 얼라이언스, 아시아–유럽 및 아시아–지중해 노선개편

- CKYHE 얼라이언스는 컨터이너 정기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3월말부터 노선을 개편하기로 함
  - 한진해운, 코스코, 케이라인, 양밍해운 및 에버그린으로 구성된 CKYHE 얼라이언스는 낮은 수요 및 선복과잉으로 인해 노선의 운항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,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함
  - 특히 이번 개편은 해상운임이 기록적으로 낮았던 201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아시아–유럽 간 노선의 만성적인 저수익성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

- 아시아–북유럽 간 정기노선 6개 중 1개 노선은 감축되고, 나머지 5개 항로는 개편됨
  - 기항지 조정을 통한 노선개편 후 CKYHE 얼라이언스는 5개의 아시아–유럽 간 정기 서비스(NE2, NE3, NE5, CEM, NE6, NE7)와 4개의 아시아–지중해간 정기 서비스(MD1, MD2, HPM/MD3, FEM)를 제공하게 됨

- Alphaliner는 이번개편으로 중국–유럽 간 셔틀서비스(CES)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힘
  - 그에 따라 펠릭스토우–함부르크–로테르담–르아브르–콜롬보–타이페이–닝보–세코우–콜롬보–펠릭스토우를 연결하는 중국–유럽 간 셔틀서비스(CES)는 중단되게 됨
  - 이는 주당 6000TEU 규모의 선복량이 감소되는 것이며, 이 중 일부는 새롭게 개편되는 아시아–유럽 간 루프에서 보완될 것임
  - Alphaliner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5척의 14,354TEU급 신조선박을 NE 7서비스에 투입, 양밍의 14,080 TEU급 선박 5척과 함께 CES중단을 보완할 것임

- CKYHE의 노선개편에 따른 아시아–유럽 간 노선은 다음과 같음
  - NE2(14,000 TEU급 선박 10척): 홍콩–난사–카오슝–옌타이–호치민–싱가포르–로테르담–펠릭스토우–함부르크–앤트워프–피레우스–싱가포르–홍콩
  - NE2(13,000 TEU급 선박 11척): 싱강–다롄–칭다오–상하이–닝보–싱가포르–펠릭스토우–로테르담–함부르크–앤트워프–상하이–싱강
  - NE5/CEM(14,000 TEU급 선박 10척): 카오슝–상하이–닝보–타이페이–옌타이–탄중펠레파스–로테르담–펠릭스토우–함부르크–로테르담–콜롬보–탄중펠레파스–카오슝
  - NE6(13,000 TEU급 선박 9척): 부산–상하이–옌타이–싱가포르–알헤시라스–함부르크–로테르담–알헤시라스–싱가포르–옌타이–부산
  - NE7(14,000 TEU급 선박 10척): 샤먼–닝보–상하이–세코우–콜롬보–피레우스–펠릭스토우–함부르크–로테르담–앤트워프–피레우스–샤먼

- CKYHE 아시아– 지중해 간 노선은 다음과 같음
  - MD1(10,000 TEU급 선박 15척): 칭다오–사하이–닝보–홍콩–난사–옌타이–싱가포르–포트사이드(서)–아슈도드–피레우스–제노아–피레우스–포트사이드(서)–포트클랑–싱가포르–호치민–홍콩–옌타이–롱비치–시애틀–칭다오
  - MD2(8,500/14,000 TEU급 선박 10척): 샤먼–닝보–상하이–카오슝–옌타이–싱가포르–피레우스–제노아–바르셀로나–FOS–피레우스–콜롬보–싱가포르–홍콩–샤먼
  - HPM/MD3(10,000 TEU급 선박 15척): 부산–광양–닝보–상하이–예탄이–싱가포르–지다–포크사이드(서)–몰타–라스페치아–발렌시아–바르셀로나–제노아–몰타–지다–싱가포르–옌타이–상하이–광양–부산–롱비치–오클랜드–시애틀–부산
  - FEM(5,500/7,500 TEU급 선박 8척): 칭다오–상하이–닝보–타이페이–옌타이–세코우–싱가포르–탄중펠레파스–아슈도드–알렉산드리아–피레우스–지다–탄중펠레파스–세코우–카우슝–칭다오

자료 : www.joc.com, 2016.3.9.

전형모 전문연구원
051-797-4683, hmjeon@kmi.re.kr

2020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증가율 약 10% 이를 전망

-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시장조사기업 Technavio사에 따르면 세계무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증가율은 2020년에 9.69%를 기록할 전망임
  - 특히 신흥시장의 온라인 해외직구(cross-border online shopping)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  - 2016년~2020년 중국은 중산층 인구의 외국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며, 이에 따른 중국 물류시장의 성장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- Technavio사의 Sharan Raj 수석애널리스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초기에는 국제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국내 부가가치 보관 및 유통 서비스 수요에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

- 전자상거래 물류를 위한 창고 수요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(Last Mile Delivery)를 위한 소형 창고와 역내 풀필먼트(E-fulfillment)를 위한 대형 센터로 구분됨
  - 기존에 물류기업들은 지역센터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당일 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용 소형 시설이 필요하게 됨

-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기업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인수하고 있음
  - 2015년 9월 Menlo Logistics는 물류부동산 개발업체인 Prologis와 제휴하여 네덜란드에 유통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으며, 이 유통시설을 통해 인접국인 벨기에와 독일에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

- Technavio사에 따르면 라스트 마일 수요 강세가 유럽의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성장을 지속 견인할 전망으로, 물류기업들은 물류서비스 능력 강화, 특히 적정 재고수준 유지 및 화물추적 등 배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함
  - 2014년 DPDHL은 Escher Group와의 5년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독일 내에 보다 쉬운 집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으며, 이를 통해 자사 네트워크에 대한 합리화를 실현함
  - 이후 DPDHL은 BravoAdvantage사의 차세대 조달플랫폼인 BravoSolution에 투자했으며, 이를 통해 소비분석, 공급자 관계 관리, 조달 및 계약 관리 등 5가지 전략적 조달분야를 통합함

자료 : www.scmr.com, 2016.3.7.

김은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72, hisgrace@kmi.re.kr

영국 Forth Ports사, Tilbury 항만 확장 부지 인수

- 영국 항만운영사인 Forth Ports는 런던 Tiilbury(틸버리) 항만 확장을 위해 부지 152 에이커를 인수함
  - Forth Ports사가 인수한 부지는 2013년에 폐쇄된 RWE 소유의 Tilbury 발전소가 있던 곳으로, 이번 인수는 부두(jetty) 매입도 포함하고 있음
- 틸버리 항만은 잉글랜드 남동쪽 지역으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던의 주요 허브 항만임
  - 템스(Thames) 강에 위치한 틸버리 항만은 런던에 가장 근접한 항만임
- 현재는 152 에이커의 부지 중 일부만 인수한 상태이며, 나머지는 발전소의 철거가 완료되면 인수할 예정임
- Forth Ports사는 인수한 부지에 인프라 및 시설 개발을 하기 위해 최소 1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임
  - 새로 개발될 항만은 철도 및 도로와 연계될 예정임
  - 또한 런던 컨테이너 터미널에 냉장 유통 센터를 건설할 예정임
- 이번 인수는 틸버리 항만의 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, 런던 및 잉글랜드의 남동쪽 지역으로 접근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핵심 자원이기도 함
- 또한 여러 종류의 화물을 취급하는 이 항만은 원목, 컨테이너, 로로, 곡물 및 건설 자재 취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
- 이번 인수를 통해 총 항만 부지의 크기는 1,100 에이커에 달하게 되며, 항만 확장을 통해 처리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틸버리 항만은 영국에서 3번째로 큰 항만으로, 연간 5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음

자료 : 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6.3.7.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DHL, 저탄소 해운서비스 개시

- DHL Global Forwarding은 탄소 저감을 위해 'Green Danmar'라는 새로운 녹색운송서비스를 개시했음
  - Green Danmar는 운송서비스 이용자에게 우수한 선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를 저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
  - 서비스 이용자가 FCL운송시에 Green Danmar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탄소배출이 적은 선사를 이용하게 되는데, DHL은 NVOCC이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탄소 저감이 가능함
  - DHL 이용자는 저탄소 운송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DHL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짐

- DHL은 신규 운송서비스를 위해 선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공급업체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
  - 업계평균보다 탄소효율(gCO_2/TEU · km)이 적어도 5% 이상 높고, 자격을 갖춘 우수한 선사를 선별하여 Green Danmar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임
  - DHL Global Forwarding의 FCL상품&생산성 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인 Dominique von Orelli씨에 따르면 운송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
  - DHL은 Green Danmar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포워딩 업체 중에서 고객들에게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고 밝힘
  - 향후 DHL은 새로운 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사들의 환경개선 성과와 인증 및 감사절차까지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임
  - 이와는 별도로 정기적인 탄소배출 보고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연간 수송현황과 환경개선 인증서를 제공할 계획임

- DHL은 2007년 이후 해상운송부문의 탄소 효율성을 40% 넘게 향상시켰다고 밝힘
  - 이와 같은 성과는 대형화되고 효율적인 선박의 등장과 같은 기술적 진보와 DHL의 선사 관리 및 선별적 이용에 의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음
  - 선사선별은 DHL에서 GoGreen라고 부르는 선사 환경성과 평가에 기반을 두는데. 평가는 협력성, 탄소 효율성, 투명성, 정시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
  - 선사와 포워딩 양자간의 논의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탄소 효율성 개선과 업계 전반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ship-technology.com, 2016.3.11 / www.dpdhl.com, 2016.2.17.

이홍원 연구원
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

물류시장동향

EU, K+N/Panalpina/CEVA/Schenker에 가격담합 협의로 벌금 부과

- EU 일반 법원은 Kuehne + Nagel, Panalapina, CEVA, Schenker에 대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 항공운송 포워딩 가격 불법 조작 공모 혐의로 벌금 169만 유로(약 1억 8,550만 달러)를 부과함
  - 이들 4개 회사는 전화, 회의, 모임,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해 운임 인상, 고객 배분 및 노선 배분 등의 민감한 내용을 협의하여 담합해 옴
- 해당 회사들은 벌금의 감액을 요청했지만, EU 일반 법원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부과된 벌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함
  - 정당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글로벌 항공운송 포워딩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처벌 이유로 설명함

자료 : Schednet.com, 2016.3.11.

김주혜 연구원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하파그로이드사, 중량 · 장척 등 특수취급 화물 집하 강화 계획

- 독일 컨테이너 선사인 하파그로이드사는 특수취급 화물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
  - 하파그로이드사는 특히 컨테이너선에 적재 가능한 특수취급 화물에 집중한다고 밝히며, 기존에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했던 중량초과(Overwieght) 및 특대형(Oversize) 등과 같은 특수취급화물을 전담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한다고 밝힘
  - 본 특수취급 화물 전담팀은 본사인 독일 함부르크(Hamburg)를 포함해 주요시장인 아시아 및 북미와 남미에도 설치된다고 밝힘
- 하파그로이드사의 토르스텐 헤이저(Thorsten Haeser) 최고영업책임자(Chief Commercial Officer)는 특수취급화물 시장은 성장 중이라고 밝힘
  - 하파그로이드사는 본 시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다고 밝히며, 자사의 경험과 경력을 발판으로 특수취급 화물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힘
  - 또한 그는 거의 모든 하파그로이드사의 컨테이너 선박이 특수취급 화물의 적양하가 가능하다고 밝히며, 본 서비스는 주요항만에서 이용가능하다고 언급함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6.3.9.

고재성 연구원
051-797-4776, jsko@kmi.re.kr